

대중가요 노랫말의 기호학적 분석

- Text로서 '강산에 1집'의 노랫말 분석을 중심으로 -

정우일*

*청운대학교 방송음악과

e-mail : garam051@naver.com

A Study on Semiotic Analysis of Popular Songs' lyric

- Analysis of 'Kang San-ae's 1st album' Lyrics as a Text -

Wooil Joung*

*Dept. of Broadcasting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용음악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입시준비교육기관인 실용음악학원의 교육과정과 실태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영리 목적의 대형 실용음악학원들의 입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세부 전공 수험생들의 보편적 전략을 비교함으로써 입학 후 실기 곡 위주의 입시교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입생들의 전공실기 이수능력문제와 대학의 실용음악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심화교육을 위하여 실용음악학원과 대학 상호간의 교육프로그램 연계와 실용음악학원의 단계별 입시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론

한국의 대중음악이 자리를 잡게 된 계기는 한국 전쟁에 의해서였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여 그들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들으며 따라하고 그것을 모방했다. 거기에 경제개발 계획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까지 더해져 한국의 대중음악은 날로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와중에 1975년 박정희의 대마초 연루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대중음악은 일보후퇴하게 되었고, 이어 전두환의 3S 문화 호도(糊塗)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부정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이에 분개(憤慨)한 젊은이 들은 펜 대신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즈음해서 미국의 히피문화가 한국에 들어와 자유와 사랑을 외치고 아울러 '통기타'라는 것이 한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청바지, 생맥주, 장발과 반항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청년문화'는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해 순식간에 대학가를 장악하였고, 이어 통기타의 편리한 휴대성으로 인해 그동안 외국의 음악을 번안하거나 카피하여 불렀던 것을 이제 가수가 직접 작곡을 아무 곳 아무 때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삼삼오오 모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이와 같은 통기타의 특수성과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끼리끼리 모여서 생맥주를 마시기도하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통기타로 노래했다. 여기서 통기타의 진영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한편은

상업성을 배제한 순수한 포크음악이고, 다른 하나는 저항의식을 담고 있는 프로테스트(protest) 포크음악이 바로 그것이다.

본고를 만들기 전에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위와 같은 사회적 연유로 인하여 거의 모든 연구가 '저항의식'과 '사회성'에 관련하여 논문들을 집필하였다. 하지만 Folk나 Rock이 모두 이러한 '저항의식'과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현 한국음악에서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나타내며 Folk와 Rock을 함께 아우르는 '강산에'의 앨범의 가사를 '기호학'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저항성'과 '사회성'뿐만 아니라 '정서'와 '의미구조'까지 파악하여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논문의 방향을 재검토해 보았고, 또한 이를 통해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음악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고의 목적이다.

참고로 본고에서는 1집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곡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좀 더 쉽게 1집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2. 본론

1집에서 그의 음악은 순수하다. 총 8곡 중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2곡,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1곡, 사회 비판적 노래가 2곡, 가족과 남북한에 얽힌 이야기가 2곡, 친구에 대한 노래가 1곡, 이상 여덟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자신의 생각을 담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자신의 부모가 실향민이기에 가족에 얽힌 사연은 곧 남북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라구요’는 1집의 타이틀곡으로 남북이산가족의 문제를 훌륭하게 대중음악으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할아버지와 수박’, ‘에럴랄라’, ‘장가가는 날’등으로 강산에는 한국의 토속적인 Rock을 구사하는 사람으로 대중에게 어필을 하게 된다.

2-1 할아버지와 수박

이곡은 첫 번째 타이틀곡으로 전형적인 Folk Rock곡으로 Folk Rock의 대표악기인 어쿠스틱 기타가 쓰이고 있고, 브라스밴드(Brass Band)가 뒤를 받혀주고 있다. 곡의 진행 역시 전형적인 I- IV- V7도의 진행을 보인다. 이 곡은 어릴 적 매일 수박을 들고 오시던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한 노래이다. 모티브 1에서는 손자를 위해 항상 수박을 들고 오시던 할아버지와 그 수박을 보며 즐거워하던 자신의 모습을 묘사 하였으며, 모티브 2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오시는 기침소리만 들어도 수박생각이 나는 아이의 친진난만한 모습이 묘사 되었다. 하지만 이제 볼 수 없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어른이 된 손자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노래하는 모습이다.

가사에서 ‘하얀 수염’, ‘빨간 얼굴’, ‘큰기침’, ‘나의 친구’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매개체 이며 ‘파란수박’은 ‘할아버지’와 ‘나’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이다. 또한 노래에서는 ‘울’이라는 ‘우리’의 준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시적허용으로 어린이가 쓰는 말투를 사용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더욱 정감을 가게 만든다. 아울러 ‘수박’이라는 과일로 인해 이 노래의 배경은 여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할아버지와 수박의 모티브 분석

가사	의미 분석
모티브 1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쓰다듬으시며	-언제나 ‘에헴’ 하며 수염을 쓰다듬으시는 할아버지의 연상 <그리움의 대상>
이웃 복덕방에 내기 장기 두러 나가셨지 해질 무렵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고 큰기침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그 날	-복덕방=항상 친구 분들과 모이시는 장소 -내기 장기에서 이기셔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기도 하지만, 친구 분들과 약속을 한잔 하셨기에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리시기도 함.
아마 내기 장기에서 또 이기셨나봐 시원한 큰 수박을 양손에 들고 오시네	-항상 수박을 들고 오심으로 장기에서 이기셨을 것이라는 손자가 하는 추측, <‘아마’라는 추측의 단어를 사용.>
하하하 웃는 빨간 얼굴에 그 하얀 수염 울 할아버지 생각나네	-빨간 얼굴 <할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매개체> -하얀 수염 <할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매개체> -‘우리’를 ‘울’이라고 줄여서 마치 어린이가 발음 하는
울 할아버지 울 할아버지 보고	

싶어	
울 할아버지 울 할아버지 나의 친구	것처럼 더 친근감 있게 표현. -‘나’의 응석을 다 받아주시고 함께 놀아주시던 친구 같은 할아버지
울 할아버지 울 할아버지 그리고 파란 수박 코가 찡하도록 생각나네	-할아버지와 나 사이의 매개체 = 파란 수박 -현재는 돌아가시고 안계신 할아버지의 그리움, 코가 찡하도록 <눈물이 날정도로 그리움> -‘울 할아버지’의 반복어구 사용하여, 그리움의 극대화 표현
모티브 2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쓰다듬으시며 이웃 복덕방에 내기 장기 두러 나가셨지 해질 무렵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고 큰기침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그 날	< 모티브 1과 동일 >
나는 즐거워 하네 수박도 너무 크네 너무 잘 익었네 나는 기뻐하네 그런 나를 따뜻한 눈길로 어루만져주던	-아이의 관심은 오로지 수박 -따뜻한 눈길로 어루만지다 <사랑스런 눈빛으로 손자를 바라다보는 할아버지>, 손자의 귀여운 모습을 바라보고 흐뭇해 하시는 할아버지
울 할아버지 생각나네 울 할아버지 울 할아버지 보고 싶어 울 할아버지 울 할아버지 나의 친구	< 모티브 1과 동일 >
울 할아버지 울 할아버지 그리고 파란 수박 코가 찡하도록 생각나네 코가 찡하도록 생각나네	

2-2 ...라구요

앨범의 두 번째 곡으로, 실제 실향민이신 자신부모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그들의 애환과 슬픔을 노래에 싣고 대변하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Rock Ballad의 곡으로 악기 구성은 전형적인 Rock의 형식(Guitar, Bass, Drum, Vocal)을 따르고 있으며, 분단의 현실을 노래한 곡이다.

이 노래의 모티브 1은 아버지의 이야기, 모티브 2는 어머니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다. 모티브 1에서는 아버지의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노래를 통해 실향민의 아픔을 노래하였고, 모티브 2역시 어머니의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노래로 이제 실향민의 세대가 거의 사라져감으로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섞여있으며, 하루 빨리 통일을 안 시키는 정부의 안일한 자세에 대한 원망을 내포하고 있다.

[표 2] ...라구요의 모티브 분석

가사	의미 분석
모티브 1 (아버지)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벧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눈물 젖은 두만강’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대표적인 노래 중 하나.

<p>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p> <p>고향생각 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곤</p> <p>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 했죠 죽기 전에 꼭 한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p> <p>모티브 2 (어머니) 눈보라 휘 날리는 바람찬 홍남부두 가보지는 못했지만..</p> <p>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p> <p>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 했죠</p> <p>죽기 전에 꼭 한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p>	<p>-아버지의 18번인 레퍼토리 '눈물 젖은 두만강', 북한을 상징, 곧 아버지는 실향민임을 상징.</p> <p>-아버지의 한탄, 고향 생각나실 때 항상 소주(서민을 대표하는 술)를 드시며, 눈물로 고향을 그리워함, 이것은 곧, 실향민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에 대한 원망이기도 함. -그리운 고향, 술에 취해 고향에 대해 그리워함. 곧 이것은 통일에 대한 염원이며, 소망이기도 함.</p> <p>-'굳세어라 금순아' 6.25전에 홍남부두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한곡, 역시 실향민이 아픔을 달래기 위해 자주 불려지는 노래 중의 한곡. -어머니의 18번 레퍼토리 '굳세어라 금순아', 북한을 상징, 이는 어머니도 실향민임을 상징. -어머니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에 혹시 고향을 가보실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눈물을 흘림, 이는 곧 실향민 세대가 얼마 안 남았음을 의미 하며, 하루 속히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임 -남은 여생동안 꼭 한번 가고 싶다는 소원, 하지만,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원망 곧 정부에 대한 원망.</p>
--	--

가사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실향민 즉 '고향'(북한)을 그리워하는 주체이며, '눈물 젖은 두만강', '굳세어라 금순아', '소주'는 '고향'(북한)과, 실향민의 그리움을 대변해주는 노래이자, 실향민들과 고향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눈물은 망향(望鄕)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결정체이다.

3. 결 론

강산에의 1집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랑에 관련된 가사가 2편, 자연을 노래한 가사가 1편, 가족과 전쟁(남북문제 포함)관련이 2편, 사회비판 2편, 친구에 관련된 가사가 1편으로 분포되어있다. 총 8곡중, 사회비판과 전쟁에 관련된 가사가 4곡으로 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랑과 자연, 친구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아마도 첫 앨범이라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그의 가사뿐 아니라 대중음악에 있어서 분석의 대부분은 가사의 의미에 유념하고 있다. 어떤 의미로 곡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쓰일 수 있고, 다른 단어

라도 같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중의미체'(polysemy)라고 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할아버지와 수박'에서 '수박'이 상징하는 일차적인 의미는 '과일'이지만 이것이 가지는 이차적인 의미는 '어름',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의미가 재해석되어진다. 이렇듯 노래의 의미구조는 '시'의 그것과 같기 때문에 단일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중복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이러한 것을 '기호학의 관점'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들이 의미구조에 있어서 '강산'의 음악에 많이 이용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노래 가사는 '정신'이고, '시'이다. 박자와 음정이 음악의 옷과 몸이라면, 가사는 음악의 정신이다. 물론 가사가 없는 연주곡도 있지만, 가사가 있는 곡에서는 가사가 정신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요즘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시대를 아우르고 있다. 서양음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CLASSIC, COUNTRY, JAZZ, BLUES외에도 ROCK, BALLAD, HIPHOP, 그리고 그것들의 결합과 각 나라들의 정통음악을 변형한 현대 음악들과 또 그것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장르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의 가사말은 대체로 정신이 없는 몸과 같다. 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가사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사를 만들 때 위의 분석처럼 하나 하나 분석해가며 만들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문법이나 앞뒤가 어울리는 가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1]김영주 - 한국 청년 대중음악문화의 전개과정과 그 특성 : 1970년 이후를 중심으로-충남대학교 대학원. 2002.

[2]김인식 - 폴랑 바르트의 초기 기호학: 바르트의 기호학적 모형, 문학과 지성사. 1995

[3]김창남 -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 이카데미. 1998

[4]박기영 - 이식 그리고 독립 : 한국 모던포크 음악의 성립과정 (1968년~1975년),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5]백선기 - 대중문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6]신형원 -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과 노래문화에 관한 연구, 국대학교 대중문화 예술대학원. 2005

[7]이혜숙 - 한국 대중음악사 (통기타에서 하드코어까지), 리즈엔북. 2003

[8]한나영 - 90년대 후반 한국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소비자 성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2001